

지역 소식통

김제시 금산면, 폐비닐 집중 수거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3주간 봄철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약 5.0톤을 수거했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야산, 도로변의 미 수거된 폐비닐 수거와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직업교육훈련 개강식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17일 오전 9시 여성회관 3층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방과후교사)과정 교육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4월 1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23일 까지 운영되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수료 후 지속적인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강식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끝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해 자격증 취득 후 취업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 사랑의 떡 케이크 전달

김제시 부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면장 임정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영길)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2회 독거어르신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사랑의 떡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어 지역사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떡 케이크는 매일 생일을 맞이한 독거어르신이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으로 가족 및 마을 주민들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떡 케이크는 부량면 금산마을 박애숙(53)씨가 2016년 베품제 행복학습센터에서 배운 '전통 쌀떡 만들기' 제조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재능기부를 통해 후원하고 부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임정업 부량면장은 "사랑의 떡 케이크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17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와 (유)대양금속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신설 투자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양금속, 지평선에 '등지'

김제시와 신설 투자 협약 체결... 205명 고용창출 기대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17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와 (유)대양금속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신설 투자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대양금속 이주석 대표이사 외 임원진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 김복남 김제시의회 부의장, 은주현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대양금속은 현재 군산에서 운영

하고 있는 (유)대양금속을 모기업으로 하여 총 7개의 신설 법인으로 구성, 지평선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부지면적 5만8,224.1㎡(약 1만7,600평), 투자금액 255억원, 고용창출 205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이처럼 7개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알루미늄 압출, 금형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여 납품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이주석 대표이사의 설명이

다.

이승복 부시장은 "(유)대양금속의 지평선산업단지 입주를 김제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평선산업단지 투자는 성공적일 거라 확신한다. 새만금의 중심 도시 김제는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지평선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한것에 대해 감사한다." 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내년 8월까지 조경수유통센터 조성

공동작업시설 등 들어서

호남 최대의 조경수 생산지인 완주군에 내년 8월경 대단위 조경수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17일 군은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29억원(국비 10억, 특고세 6억, 군비 13억)이 투입되는 조경수 유통센터조성사업은 소양면 신교리 일원 5997㎡에 관리동, 품종별 전시포, 유통판매시설, 공동작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군은 5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올 8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특히 조경수 유통센터는 유통단계를 축소함에 따라 유통마진을 생산자에게 환원하고, 조경수 합동판매 등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기반이 구축되면서 관련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큰



호남 최대의 조경수 생산지인 완주군에 내년 8월경 대단위 조경수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쭉 등 조경수 전국 생산·유통의 30%를 담당하는 등 전국 3위의 거점지역인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양을 중심으로 조경수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인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이자, 공약사업이 바로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이라며 "조경수 관련 농가들이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 건설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완주서 전국카누대회 열린다

20일부터 24일까지...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 진행

전국 규모의 카누대회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완주군 구이 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2017년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대회가 20일 구이저수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연령별 및 남녀별로 200m, 500m, 1,000m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100여개 팀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도내에서도 5개팀 2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군은 대회 진행을 위해 이달 스타트·파니시 라인과 레인 및 측정장비 등 대회 시설물 설치를 완

료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 선수단의 지역 숙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심권에서 접하기 어려운 수상종목의 저변을 확대해 주민 생활체육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봄을 맞아 수상을 질주하는 카누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보건소, 혈압·혈당 측정 홍보 캠페인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7일 2017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자기 혈압, 혈당 숫자알기" 슬로건을 걸고 30세 이상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년 연중 실시되는 캠페인은 '내 혈압, 혈당 숫자'를 알고 건강혈압, 혈당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의 혈압과 혈당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홍보문구를 부착 운행하고 방문간호사 5명으로 사업팀을 구성, 다중이용시설 및 5일장 등 현장에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도 주기적인 혈압과 혈당측정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